

꽃산딸나무

LANDSCAPIN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층층나무과
- ▶ 학명 : *Cornus florida*
- ▶ 영명 : Flowering Dogwood
- ▶ 일명 : 아메리카야마보우시



▲ 꽃산딸나무



꽃산딸나무는 북미원산으로서 우리나라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꽃(總苞)과 열매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이다. 우리나라 산야에서 자라는 산딸나무는 잎이 핀 후 가지 끝에 꽃이 피므로 위쪽 꽃은 올려다 볼 수 없으나 꽃산딸나무는 잎과 함께 또는 잎보다 먼저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 덮여 더욱 화려하다. 꽃 색깔 또한 백색 외에 분홍 빨강꽃이 피어 더욱 화려하다. 그 중에 빨강꽃 계통은 추위에 다소 약하고 생장도 느리기는 하나 관상가치는 가장 높은 고급 정원수이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의 주화로 삼을 만큼 널리 식재되는 정원수, 공원수, 가로수로 애용되는 나무이다

1. 생태적 특성

북미원산으로 197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으며 양수로서 배수가 잘되고 표토가 깊은 비옥한 땅을 좋아한다. 그러나 토질은 별로 가리지 않으며 생장은 빠른 편이다, 원칙적으로 전정은 하지 않으며 여름철 한발이나 음지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수형이 나빠진다.



▲ 꽃산딸나무



▲ 꽃산딸나무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곧게 자라며 여러 개의 가지가 원줄기 주변에서 올라오며 통상 수고 5~7m에 이르나 12m까지도 자라며 직경은 30cm까지 자란다. 수피는 회흑색으로 검고 종으로 골이 생긴다. 어린가지는 자갈색으로 초기에는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가 있고 잎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8~10cm이고 톱니가 없다. 잎의 윗면은 검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이다. 잎이 나는 초기에는 연모가 있다가 점차 없어진다. 꽃은 4~5월에 전년지 가지 끝에 7cm로 대형인 4장의 총포 중심에 황녹색 꽃이 있다. 과실은 10월에 성숙하는데 난상형 타원체로 길이 1.2cm 직경은 0.7cm이며 1개의 과일에 2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4월에 잎과 함께 혹은 꽃이 먼저 피는데 일반인들이 꽃으로 착각하고 있는 총포의 색깔이 백색, 분홍색, 빨강색으로 관상가치가 높다. 특히나 우리나라 자생 산딸나무는 잎이 핀 다음 꽃이 피니까 위쪽 부분의 꽃은 감상하기가 어려우나 꽃산딸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

덮여 더욱 관상가치가 높다. 이른 봄 아름답게 피는 꽃 뿐만 아니라 가을에 선홍색으로 물드는 단풍도 관상가치가 높다. 자생하는 산딸나무와는 5~7개씩 뭉쳐 달리는 열매 또한 선홍색으로 아름답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와 접붙이기로 한다.

열매에 발아억제 물질이 있으므로 완숙되기 직전에 따서 과육을 씻어 제거한 후 직파하는 것이 가장 발아율이 좋다. 저장할 때는 다소 젖은 모래와 섞어 땅속에 가매장 하던가 5℃정도의 저온에 저장한다. 저장중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하면 발아력을 상실한다. 저장된 종자는 다음해 3월중에 파종한다.

산딸나무의 실생 2~3년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3~4월 싹트기 전에 절접형태로 접붙인다.

5. 그 밖의 용도

개화 기간이 약간 길기 때문에 꽃꽂이용으로 사용한다. 